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성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실의 고쳐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적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바닷물 삼켰으면 토해낼 줄 알아야

이번에 여러 군데를 다녀 보고 듣고 하면서 생각하기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마음 공부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되더군요. 정말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데가 드문 거 같아요.
거기는 천주교도 많고 그래서 안내는 데로 들어가니까 세상이 이루어지고 난 뒤 발생하는 그 자체를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더군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타의에 모든 것을 믿고 가는 거 보니까 현재

의니를, 정신계의 니를 모르고서 어떻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요.
정말이지 인생은 짧지만 아주 끝없이 길다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또 출창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처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빌딩들은 많지만 그 밑으로 사람들이 사는 구조나 모든 형색들이 모두 다 똑같지만 그래도 한국에는 어린이들이 몰려서 있는 집들이 나일 벌어놓는 것들이 삼분지 일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이 뭔가 하고 누구나 생각을 다 하게 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을 모르거든요. 헤아릴 수 없고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가 행해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 모르고 사는 인생, 모두가 처음하고 참 가끔 목이 메일 때가 많았어요.
때에 따라서는 살고 있는 집이 웬만큼 해도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 산 같이 살아가. 바람 같이 살아가는 뜻이 바로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데는 아주 적격이죠. 집적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집을 떠났으나 못 있어서 그냥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과거를 감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거기를 떠나지 못하거든요. 모습들을 변경시켜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오다가 로마 카타콤베 성당이라는 데를 지났습니다. 지하에 무덤이 왜 있더군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끌어내서 잡아갈 수 있었지만 굴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끌어내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네 다섯 군데로 지하를 파는데 그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죽었다. 모두 벽 속에도 묻히고 땅 속에도 묻히고 그냥 뒤죽박죽 돼서 전부 묻혔는데 그런 거를 그냥 거기 두고 성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니까 모두 쥐, 다람쥐 이런 걸로 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앞에 어떻게 얘기해야 그쪽도 좋

게 해야 만이 그거를 다 끊고 회향할 때 정말 훨훨 다 털고 나서게 되는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훨훨 다 털고 나설 수 있을는지.
더군다나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진짜로 자기 자신의 신을 믿고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집을 만든 것도 자기인데, 자기 집을 만든 것도 자기요, 그 집 속에서 사는 것도 자기요, 그 집 속에서 인연 따라서 인과성으로써, 인과성뿐이 아니라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세균성, 업보성을 다 가지고 속에도 넣고 인연 따라서 살고 있거든요. 한 사람도 그런 인연없이 속에 앉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얼마 있으면 칠석이 다가오고 백종이 다가옵니다. 백종이 다가오는데, 이게 마음을 흐트러트려서까지 생각하면서 침착하게 할 수는 없겠기에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영계성이라는, 왜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천차만별로 벌어지는가 하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싶군요.

안 좋은 문제 생길 때 상대방도 자기로 보고 내 탓으로 돌려 놓으면 걸림없이 여여히 가는 길

사는대로 주어지는 삶

이거는 옛날 얘기이지만 나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그 영혼을 말합니다. 오는 길에 거기 갔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다하우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플로렌버그 수용소, 이렇게 세 군데를 들었는데 한 군데서 세 군데를 다 해결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가서 세 군데를 다 하는 데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상에 의해서, 바라지가 되는 이치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 스님들이 본인은 알지 못하는데도 본인의 모습들이 다 거기에 등장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등장을 하셔서 자기 할 일들을 다 하셨지만 그거는 이쪽의 에너지, 저쪽 다섯 개의 에너지가 색상이 있다면 한데 합쳐 걸려서 전부 색상이 벌어져서 영상으로 회화해서 일 처리를 하는 문제들 말입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형용할 수도 없고, 했다고 말로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오다가 로마 카타콤베 성당이라는 데를 지났습니다. 지하에 무덤이 왜 있더군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끌어내서 잡아갈 수 있었지만 굴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끌어내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네 다섯 군데로 지하를 파는데 그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죽었다. 모두 벽 속에도 묻히고 땅 속에도 묻히고 그냥 뒤죽박죽 돼서 전부 묻혔는데 그런 거를 그냥 거기 두고 성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니까 모두 쥐, 다람쥐 이런 걸로 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앞에 어떻게 얘기해야 그쪽도 좋

나도 없다면 몇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실 겁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좀 마음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천하에서도 가난하다 뭐 하든 이런 말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한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만약에 요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공기주머니를 벗어나 흙을 털고 낫을 때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생각, 한번보고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지금부터 아신다면 너무나 기쁠 겁니다. 아, 그렇다면 전 세계도 한 주머니밖에 안 되는 거 뭐이 그렇게 걱정이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돌로 보지 마시라. 돌로 생각하지 마시라. 돌로 행동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생시에 아주 뿌리나 튼튼히 나서서 완벽하게 자기 잘했다면 공포도, 하다 못해 벌레를 봐도 돌로 보지 말고 무서운 귀신을 본 다 뱀을 본다 어떠한 짐승을 본다 하더라도 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앞에 딱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시에 모른다면 죽어서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수용소에 모인 그분들이 너무나 그냥 확 그걸 떼어서, 얼른 말을 알아듣고 나오질 못하고 반 이상만 나오지 그 외에는 나오질 않고 그냥 떨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 이쪽 한국말과 그쪽 말이 달라서 가깝니다. 말은 달라도 상관없고 모습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뜻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방편으로써 많이 쓰여졌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수용소 안이 발라 뒤집다시피를 했지만 보이는 데서는 조용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 부모 자식, 동기 모든 문제 동등을 가지고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칠석이다 백종이다 하는 그 문제, 칠석에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데에 완성시키는 이치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완성시키는 데에 해탈 문 열게 해주는 것이 백종입니다. 그래서 백종이라고 하죠. 없는 문을 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한참나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한참나에 쫓기고 한참나에 살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서 자기가 사람으로 살았는지 뭘로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숨을 쉬고 사니까 살아보다 하고 쥐 나뉘대로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사는 걸로 그냥 알 듯이, 그 나름대로 다람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원인이든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자기가 산 것대로 자기가 아는 것 대로에 모습을 받게 되는데 거기선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야만 되는지 잘 생각해볼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 내가 제일이야. 내가 왕이다 이라고 살아도 그 비참한 일들을 다 말로 못할 겁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한참나 사는 건데 끊임없이 바뀌면서 변함 없이 끊어지지 않는 그 도리,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기가 어떻

게 해야 만이 그거를 다 끊고 회향할 때 정말 훨훨 다 털고 나서게 되는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훨훨 다 털고 나설 수 있을는지.
더군다나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진짜로 자기 자신의 신을 믿고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집을 만든 것도 자기인데, 자기 집을 만든 것도 자기요, 그 집 속에서 사는 것도 자기요, 그 집 속에서 인연 따라서 인과성으로써, 인과성뿐이 아니라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세균성, 업보성을 다 가지고 속에도 넣고 인연 따라서 살고 있거든요. 한 사람도 그런 인연없이 속에 앉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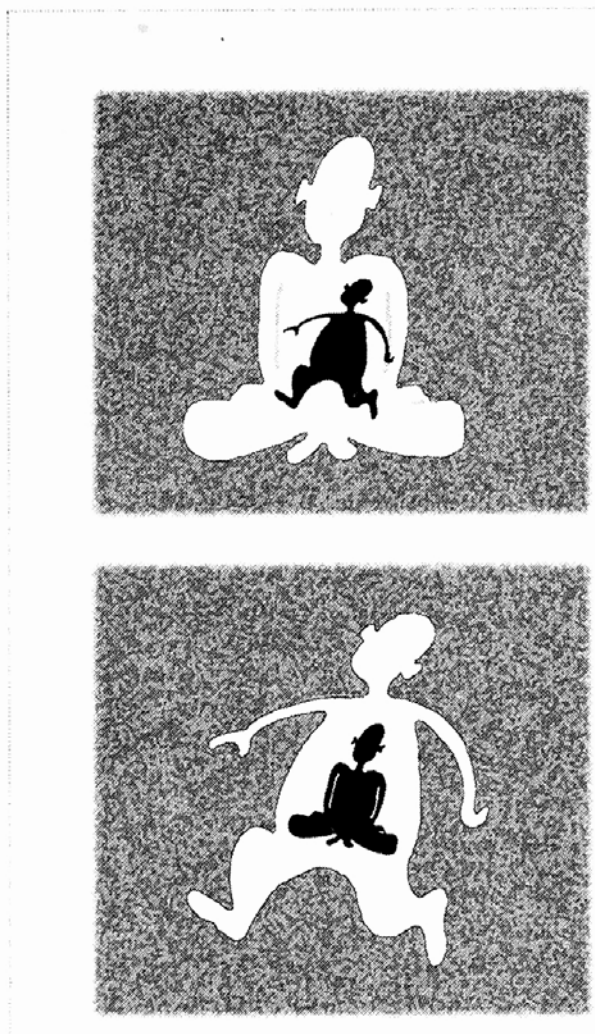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운데에 바로 듣고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모습 아닌 모습, 생명 없는 생명, 마음 아닌 마음, 힘이 없는 용, 또 힘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먹을 수 없이 먹을 수 있고 바닷물을 다 삼킨 거와 같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삼켰으면 그것을 토해낼 줄 알아야 하는 도리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말로 공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런데 바닷물을 다 집어먹었을 때에 그 물 속에 벌의벌 게 다 들어있을 테죠. 죽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픈 것도 들어있고 뭐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이 다 들어있는 거죠.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 마음 속에 벌의벌 가정, 벌의벌 가정 속에 애라는 마음들이, 이 쪽에는 이런 거 저쪽에는 저런 거 모두가 들어있는 그 자체가 똥덩 바닷물 한 속에 들어있죠. 바닷물 한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삼킬 수 있어야만 그게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진짜 공식이라고 하려면 그것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물을 정화시켜서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

이 문제가 참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보고 헤어지고 이리지만 헤어지든지 듣든지 잠을 자든지 깨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살아나가면서 악한 사람도 만나고, 선한 사람도 만나고, 악한 일도 생기고, 선한 일도 생기는 데서 돌 아닌 도리를 배우 시란 얘깁니다. 악한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돌로 보지 않는 그 마음으로 돌이 아니게끔 관해 놓으면 그것이 스스로서 돌이 아니게 처리가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행해서 자기가 알고 공부하는 길이거든요. 또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악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내 탓으로 돌리고 관해 놓아라. 상대방도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럼으로써 그것이 성취된다거나 잘 무마가 된다거나 한다면 그게 바로 경행이자 길을 가는 데에 걸림 없이 여여하게 걸어가는 길이죠. 이게 모두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마음을 쓰게 되겠죠. 적으면 적은 대로 쓸 거고, 크면 큰 대로 쓸 거고, 더 크면 더 큰 대로 쓸 거고, 마음이 바다면 바다 같이 크게 쓸 거고 그래서 마음이 크고 작은 대로 그냥 쓰고 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게 진짜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적은 거나 큰 거나 나쁜 거나 좋은 거나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마음 속에서 모든 게, 좋게 나오든지 언짢게 나오든지 한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만물은 共生하는 존재

근데 한마음 속에 있는 거는 알지만 실천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진짜로 알고 한다고 하더라도 삼일이 못 가서 그것은 다 폐지가 돼 버리고 말죠. 그런데 보살이라는 이름을 갖은 분들은 사흘도 끝없는 날도 날까지 두지 않고 여에게 그대로 사는 거죠. 그대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못했구나 이런 게 없이 그런 마음이 그대로 돼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마음을 쓰는 그 뜻을 그대로 쓰고 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영계들이나 무서운 악령들이라든가 무서운 악의 문제든지 달려들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왜냐. 그걸 돌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생명도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생명같이 존중하고, 내 생명 아닌 내 생명 같이 생각하라. 내 진짜 마음 아닌 진짜 마음, 이게 즉 한마음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그 생명은 다 같습니다. 모습이 달라요. 근데 생명이라는, 생명이라는 건 하루 만에 죽는 거나 며칠만에 죽는 거나 여든 살만에 죽는 거나 백살만에 죽는 거나 그 자체는 똑같아요. 모든 것이 모습은 다르나, 다 모습이 있다는 점에 의해서 미생물도 똑같아요. 또 마음을 천차만별로 쓴다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는 거, 보는 거, 듣는 게 자기네들

통 속에서, 즉 말하자면 자기에 끼리끼리 살기 때문에 그 끼리끼리 사는 모습, 행동이 나와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이치를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보살들 사는 생각을 못하듯이.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다섯 가지의 문제가 다 어느 정도 돌아가야 진짜 보살행으로 넘어간단 얘깁니다. 남이 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이렇기 이전에 말입니다. 스스로서 행동하는 거 보면 벌써 알아야. 자기가 마음 쓰는 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공체가기 때문에 공용이다. 공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으로 들어간다. 찰나찰나 환경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찰나찰나 바뀌어서 돌아가면서 바뀌는 일들을 그냥 여여하게 바꾸는 대로 살아나가고 있다. 본래 우리가 여여한 생활을 산같이 하고 물같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음들이 그렇게 되기를 알아서 인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잠재해 버리죠.

공식하면 벌써 원칙인데 공식하면 먹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식하면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저 모습 안으로 싹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모습 안으로 천차만별로 모습들이 만개가 들어갔는데도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있는 자체가 바로 공식이기 때문이죠. 공한 자체가 때문에 이 공 자체에서 공 자체가 들어가면 그냥 공식이 돼 버리죠.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돌이 아니요, 보살과 중생이 돌이 아니라는 거죠. 벌레하고도 돌이 아니요, 모두가 돌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른다면 도깨비 장난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체가 생겨 가지고 구를 위에 떠다니면서 움직여지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신차려서 들지 않으신다면 요다음 생에 자기가 훨훨 털고 나설 수가 없어요. 이젠 듣고 보는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자체가